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모국 교회를 알고 싶습니다"

모국 교회 전학 및 위탁교육 청원 수락

6월 19-24일, 충현기도원에서 숙식하며

교회는 미국 교포 교회에서 청원된 모국교회 방문전학 및 위탁교육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곳 교회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정기당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준비하여 온 미국 교포 교회의 모국 교회 방문전학 및 위탁교육은 6월 19일(토)부터 24일(목)까지 5박 6일간의 방문 견학과 우리 교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 수련회 기간 중 위탁교육의 두 가지이다.

미국 앵커리지 열린문 장로교회(이동규 목사 시무)에 소속된 토요일 한글 성경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 23명은 오는 6월 19일(토) 우리 교회에 도착하여 24일(목)까지 체류하면서 교회 예배 및 교회학교에 참석하고 순교자 기념관 및 임진각, 통일촌 교회, 군부대 등을 방문 견학하며 고국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국민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된 방문단의 숙식은 충현기도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매일 아침 6시에 새벽기도회를 갖고 일정표에 따라 여러 곳을 방문, 견학하

게 된다.

교회학교에서는 6월 20일(주일) 해당 학년의 방문단원을 맞아 함께 교육하고 소개하며 고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향 영광장로교회(이근신 목사 시무)가 요청한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 위탁교육은 우리 교회 여름행사 일정표에 맞추어 보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

한편 이들이 와서 체류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교회가 부담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교우들이 부담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용을 부담할 교우들은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제 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은혜가운데 마쳐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모인 제 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은혜가운데 마쳐졌다.

우리 교단(예장 합동)에 소속된 전국의 목사·장로들이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었는데 새벽기도회와 오전, 오후, 저녁집회 등으로 하루종일 모였다.

우리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둘째날 오전에 '현대신학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고 김창인 원로목사는 셋째날 저녁에 배에 속도 순서를 맡았다.

매년 1년에 한번 봄에 모이는 목사·장로 기도회는 지난 1990년부터 우리 교회당에서 모이고 있다.

군전도회

제2훈련소 신병입소대대 교회 방문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지난 5월 11일(화) 회원 107명이 제2훈련소 신병입소대대 교회를 방문하여 장병 500여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지고 간 성경찬송 합본 500권과 쌀솥이 5대를 기증하며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입소대대교회 담임목사인 김명환 군목이 사회를 기도에 김여순 장로 전도위원장 임성환 목사의 설교와 군전도회원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찬양순서를 맡았다. 군전도회는 지속적으로 군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군부대를 방문하여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군전도에 대한 효율적인 전도전략을 세워나가려고 한다.

본당 108호 군전도회 사무실에서는 충현 가족들의 군상담도 하고 있어 관계된 사람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5월 17일-19일 안양 관양 제일교회 부흥회 인도
· 5월 21일 93성령강림 서울 성령화 대성회 인사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5월 19일 교사 단기수련회 설교

김창수목사 출국

수리남에서 사역 중인 안석렬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안 선교사의 대리로 일할 김창수 목사가 지난 5월 12일 현지로 떠났다. 한편 안 선교사는 8월경 귀국할 예정이다.

전국 목회자 세미나 종강

다음 학기는 9월 6일에 시작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 제2회 6학기가 지난 5월 10일(월) 10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강식을 가졌다.

'목회와 복음전도'란 주제로 모인 이번 세미나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로마서 연구와 김준곤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특강을 담당했다.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하여 매회 700-800명이 참석하였다.

다음은 3회 1학기로 9월 6일부터 11월 8일 까지(10주간),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갱신'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해서 가정에 관한 많은 날들이 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키며 그 의미를 새롭게하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갖는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나이드신 어른들을 모시고 지난 5월 8일 교회당에서 경로잔치를 열어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주일 저녁 찬양예배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모든 율법의 핵심은 '효(孝)'라고 하신 말씀을 이 5월에 깊이 생각해 보자. (사전/이승철 집사)



5월17-19일, 교사단기 수련회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입니다.

신성종, 정삼지, 정일웅 목사 강사로

교사단기수련회가 내일(17일)부터 수요일(19일)까지 '기도하는 교사'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모인다.

기간중 첫날에는 정삼지 목사의 "소그룹 양육과 교회성장", 둘째 날에는 정일웅 목사의 "교사의 자질 향상과 영성개발", 셋째날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다. 또 강의 후에는 교사 자신의 영성개발과 사명감을 위해,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는 참석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마 15:20)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과 심지 않으신 것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유전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마 15:12)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분노를 품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군중들 앞에서 비난을 받았습니 다. 둘째는 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존재 기반을 장로들의 유전에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유대인들은 유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 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마 15:13)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은 것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리와 제도와 사람을 심으십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는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것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신 교리, 제도, 사람들은 뽑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이나 교리나 제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이나 교리나 제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다 맺기까지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마 15:13)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인지 사람이 심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받고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것이므로 변하는 것이고 뽑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2.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 예수님께서 소경 인도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소경에는 육적인 소경, 문화적인 소경, 영적이 있습니다. 이 중 영적 소경이 제일 문제인데, 영의 세계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바로 계한나, 지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마 15:15)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진리를 향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은 바리새인들만 없는 줄 알았더니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충헌강단



죄악의 근원 (마 15:12-20)

하나님이 심은 것인지
사람이 심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받고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신성종

<목사·당회장>

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죄악의 근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 15: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하여 믿음으로 결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썩다'라는 악마가 묻어 있다가 음식과 함께 입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악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 이유는 첫째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이 구절은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은 깨끗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마음과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신자는 무엇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의 위선을 애기하신 것이고 인간을 더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꾀방이니"(마 15:19)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십계명 후반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 '악한 생각과'에서 '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카'라는 말인데 영어로 '그리고'(and)의 뜻과 '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즉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꾀방이니'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중에 가장 중요한 울타리는 주일성수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할 때 물없는 청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됩니다. 사람들은 몸이 더러우면 목욕탕에 갑니다. 그런데 충헌교회가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쳐야 되고 말씀의 물로 닦아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4. 결론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계시는 집입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좋은 생각들이 항상 있어야 하며 깨끗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장로님들 댁을 심방합니다. 심방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일년에 한 번 대청소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인간인 목사가 가는데도 그렇게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날마다 쓸고 닦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지켜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



나는 어려서는 순사(일제 때의 경찰)가 제일 무서웠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내가 울면 '순사 온다'고 하시고, 잘못하면 '순사가 잡아간다'고 하셨다. 그런데 좀 커서 운전을 하면서는 교통경찰이 제일 무서웠다. 언제 어디서 숨었다가 그렇게 웅크려 나타나는지. 그러나 나는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세상말로 충격을 먹었다.

여러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검찰 가족도 있고 경찰 가족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말도 잘 못하게 이상해서 물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서워서요'라고 대답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다니,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간다. 생사할 데려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야단을 치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죄요,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자.

글 / 신성종 목사

♥ 사랑하는 아들에게 ♥

너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에
진실하도록 하자김 경 희
(집사 초등6부)

사랑하는 상원아!

하루에도 수십번씩 불러보는 이름이지만 글을 통하여 불러보는 너의 이름은 엄마에게 더욱 든든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구나. 너를 사랑의 선물로 받고부터 지금까지 느낄 수 있었던 기쁨과 사랑스러움과 대견스러움 그리고 아팠을 때의 안타까움과 때때로 느껴지곤했던 아쉬움의 순간들까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상원아! 때때로 엄마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 그럼에도 부모님의 훈계를 묵묵히 들으며 노력하고자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렸고 한편으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못하고 엄마의 뜻과 의지대로 키우려했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곤 했었다.

엄마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엄마를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시곤 했었다. 그러기에 엄마는 네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느껴진다.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하구나.

상원아! 어떤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그릇에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담아둔다면 그 그릇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보석함이 되겠지? 그러나 그 그릇에 지저분한 쓰레기를 담아 둔다면

엄마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엄마를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시곤 했었다. 그러기에 엄마는 네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느껴진다.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하구나.

그 그릇은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천한 쓰레기통이 될거야. 디모데 후서 2장 20-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단다. "큰 집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상원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그릇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갖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주어진 오늘의 생활에 충실하자구나.

상원아! 내가 좋아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지. "하나님이여 내



▲ 단란한 김경희 집사의 가족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말아야. 이 기도가 너와 엄마의 기도가 되어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욱 하나님을 알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 주시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노력하자구나.

상원아! 이제까지 그랬던 것 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에 진실하도록 하자.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화이팅!!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 가정의 달에 ♣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김 천 체
(장로 영어예배부 부장)

하나님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 앞에 나의 모습은 늘 부끄럽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게는 불효스럽기만 하다.
아, 나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될까?

국립학교 시절의 이야기다. 어느 날 선생님이 질문지를 내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는 물음에 나는 '아버지'라고 썼다. 선생님은 절절 웃으시며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을 묻는다고 다시 설명해 주셨다. 그러나 그 당시 어린 나로서는 웃는 선생님이 오히려 이상했고 우리 아버지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안타까운 생각뿐이었다.

6살때의 막내인 나는 학교입학도 전에 아버지 덕분에 이미 한글과 구구단셈을 끝내고 한문까지 어느 정도 익혔다. 1학년 들어가기마자 곧 3학년으로 월반이 되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나을바 없는 머라는데도 아버지는 알뜰부터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는 정말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수 설계하신 큰 집을 건축하여 인근에서 구경과 소문이 자자할 정

도로 크고 작은 일에 추진력이 탁월하셨다. 독학으로 한의사업을 하시면서 평생 체험한 비방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지 못해 늘 아쉬워하시던 한학자이기도 하셨다. 모든 면에 재능과 덕망과 위풍을 완벽하게 갖추신 아버지는 나에게서 곧 하나님 같은 분이셨다.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아버지 앞에서는 껍이나 조심해 하곤 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물 정도로는 상대적 표현을 쓰는 질문은 그 자체가 내게는 불경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장성하고 내가 중년의 아버지가 된 지금 더욱 귀하고 값진 유산은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몸소 본을 보이신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었다. 일을 하면서도 밥상에 앉아서도 아버지는 틈나는 대로 가르치셨고 나는 한 없이 그 말씀에 빨려들어갔곤 했다. 심지어 이부자리를 개고 방을 청소하는 일부터 예의범절과 건

장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지혜를 소상히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위대한 나의 가정교사이셨다. 뿐만 아니라 독서와 서예, 학문과 기술까지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진수를 전수받았다. 생각해보면 성년이 되기까지 많은 스승과 좋은 친

구를 만나 여러가지를 배웠지만 그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교훈과 모범이 나의 일생을 좌우해 왔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큰 슬픔과 함께 축복을 주셨는데, 위로 세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을 계기로 유교적인 가풍에 깊이 젖어 계셨던 아버지는 늦게나마 주님을 영접하셨고 무르익은 신앙의 노년에는 소중하게 아끼던 유산을 교회에 헌납하시는 믿음의 본까지도 남김없이 보이었다. 2년 전 여름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하시던 가족들의 찬송과 임종기도 속에 평안한 미소를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 앞에 나의 모습은 늘 부끄럽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게는 불효스럽기만 하다. 아, 나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될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부모자식 간에 이어가는 지고한 사랑의 혈맥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법. 내가 받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예수님 믿고 좋은 점은?

청지기 훈련을 마쳤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그런데 증인이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다. 우리는 주님께 증언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 관해 보여준 것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추상적이고 내가 실제

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접어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나는 예수님 믿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

동서남북

에 바로 증인으로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엔 대답하기가 어렵겠지만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면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증인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자이다.

토막소식

- ◆ 유치부는 지난 8일 충현경로잔치에 참가하여 재능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쁘게 하며 위로하는 순서를 맡아서 참석한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 ◆ 초등1부는 지난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찬양대회를 가졌다. 가족간의 사랑과 화합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 ◆ 초등2부는 지난주일 토요일(15일)에 전도대상자를 위한 운동회를 교회에서 갖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29일(토)에도 할 예정이다. 또 5월 30일 오후 3시에는 '가족찬양부르기'를 할 계획이다.
- ◆ 초등4부는 다음주일(23일),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에 출전할 사람을 선발하는 전체 성경 암송대회를 갖는다. 범위는 창세기 1:1-31
- ◆ 초등6부는 자체 암송대회를 23일에 갖고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에 나갈 사람을 뽑는다. 범위는 창세기 1:1-2:17

◆ 중등1부는 6월 13일 충동원전도 행사를 앞두고 장기결석자를 파악하여 그들의 장기결석 이유를 알아보고 출석을 권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중등2부는 5월을 장기결석자 심방의 달로 정하고 장기결석자에 관심을 높이며 심방계획을 짜고 있다.

◆ 중등3부는 5월 29일(토) 오후 '예수 사랑 봄 잔치'를 갖기로 하고 세부계획과 일정을 결정하고 준비에 열심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전원이 기간까지 매일 하루 5분이상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사들은 특별히 릴레이식 기도를 통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면려회 임원과 각 반장들도 기도운동에 앞장서 중등3부 전체가 기도운동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전도대상자들에게 3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하는 동기유발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초청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이처

럼 29일(토)에 모여 함께 운동하고 교제한 후 30일(주일) 충동원주일로 지키며 그들은 교회의 예배와 모임등에 초대한다는 계획하에 기도 가운데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 대학부는 5월 '목양의 달'로 정하고 지도 교역자와 교사들은 스텝, 조장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조장들은 조원들과 만나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청년3부는 5월 30일 선교에 대한 현실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작은 선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선교에 관한 특강을 가질 계획이다.

◆ 에바다부는 지난 5월 10일 수화 수료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수화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료식에는 초급반 수료자 12명, 중급반 수료자 8명등 20명의 수료생이 나왔다.

◆ 전도위원회 산하 교정전도회에서는 지난 4월 부활절을 맞아 춘천소년원과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란과 선물 등을 전달했

다. 또한 5월 10일에는 영등포 교도소를 권사회와 여전도회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방문하여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 실업인 선교회는 4월 29일 베다니홀에서 연예인 교회의 구봉서 장로를 초청하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50여명의 회원과 성도들이 참여하여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구인·구직'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에 실업인 선교회는 교육관 1층 로비에 구인·구직에 관한 게시판을 설치하여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있다.

◆ 오늘(16일) 제2연합교구(2,5,6,18,20,23) 모임이 오늘 17부 예배 후 교육관 307호실에서 모인다. 해당교구 식구들은 모두 모이기를 바라고 있다.

◆ 오늘(16일) 제4연합교구(3,9,10,11,12,17교구) 연합모임을 충현올림픽 준비를 위하여 교육관 314호실에서 2시 30분에 모인다.

◆ 제4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장 인사 ◆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우 기 전

(장로, 충현올림픽 조직위원장)



희망이 가득찬 코발트색 5월의 하늘 아래 충현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제4회 충현올림픽을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충현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 온 충현의 성도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인 서로의 유대강화, 친교 그리고 교회의 더 큰 성장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신앙공동체 모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난 2월 15일부터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부서별로 계획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기교육이나 운영에서도 믿음이 있도록 독려,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사랑부, 에바다부, 소망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호흡을 같이 할 이번 충현올림픽은 23개 교구를 4개 연합교구팀으로 묶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축제분위기로 연출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이 신앙생활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체육행사시 한 단계 성숙된 충현가족들의 한 마당 잔치가 되도록 당회장과 당회원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의 지도와 협력과 기도로 도와주심을 고맙게 생각하고 일선에서 세미한 부분까지 차분히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실무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는 제4회 충현올림픽의 표어입니다. 이는 체육과 성도의 교제와 비전을 함축성 있게 나타낸 것이며 미래 충현의 좌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있게 뛰어봅시다. 손에 손잡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 충성으로 한 몸이 되어 달려봅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솟아오르는 기상으로 복음확산과 진리파수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제4회 충현올림픽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직무, 깨끗함과 거룩함에 생활하려는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 충현가족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에 인사를 가드립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김창인 목사님 : 5월17일(월) - 5월19일(수) 안양 관양제일교회 부흥회 인도
5월21일(금) 93 성령강림 서울성령화 대성회 인사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성종 목사님 : 5월19일(수) 교사 단기수련회 설교
2.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교사단기 수련회를 통해 사명을 새롭게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4. 사랑의 마음으로 충현올림픽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잔치가 되게 하소서

1953 · 교회설립 제 40주년 · 1993

교회설립 제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2회씩 연습실시(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예배 후)
- 일정 : 6월 25일 ~ 7월 6일
- 제 2차 수련회를 5월 6, 7일 충현기도원에서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4월 4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처장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조직 확정
- 각 교회학교 암송대회를 대비 해서 자체내의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등 실시하고 있다

3. 제4회 충현올림픽

- 4월 4일 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여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손신애 · 고등부 회원)
- 4월 4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짐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평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 4월 11일 피켓 걸 삼사 선발: 유정명 자매 (제1교구, 청년 2부)
- 4월 11일 전교인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 실시
- 매주일 오후 4시 산교관 305호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로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
- 각 연합교구들은 모임을 갖고 올림픽출전계획과 가정행렬 계획들을 수립

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일정을 9월 2, 3일로 잡고 기본일정표 작성, 준비작업에 들어감

5.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 모든 기본계획과 섭의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감.
- 5월14일, 심포지움에 참여하여 발표할 강사들이 모여 협의